



계란 G.P센터 설치대책방안 건의 - 채란업계 안정위해 사전협의 거쳐 -

본회는 농수산부 관계부서와 축협중앙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과 '86, '88 올림픽을 대비한 상품성향상, 가격안정(계획생산)과 난가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계란 G.P (grading and packing)센터 설치대책방안을 건의했다.

이는 현재 채란업이 수급불균형으로 계절적 가격변동 극심, 비위생적 유통으로 상품성저하, 유통경로 다단계로 유통마진 증가.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천대식품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 △위생적인 계란공급 △계란소비 구조의 다변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G.P센터 설치를 건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G.P센터의 설치를 위해서는 유통비용 증가, 시설투자비 막대, 전문요원 부족, 소비자 인식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관계당국에서 유통부문 결손액, 시설비는 당분간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조 및 투자가 필요하며 전문요원의 교육, 소비자 홍보등을 지원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본회는 이에 (제 1 안)축협중앙회에서 직영, (제

2 안)회원지역조합 또는 업종별조합에서 설치 운영, (제 3 안)생산자 상인 등 민간인차원에서 운영 등 3개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대한 장·단점, 협회의견, 농수산부·축협조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농수산부

○공기업개념 도입으로 축협사업으로 실시하며 점차적으로 민간사업으로 발전 유도

○기계도입관계 면세 및 일정기간 세금혜택부여

○슈퍼, 군납, 학교, 공단 등 대량소비업소와 연결협조

○시설, 홍보, 결손보전 등 축산진흥기금 투자

○관계관, 축협·협회 관계자 사전 선진국 견학 및 자료수집

축협중앙회

○유통구조개선 위해 축협이 선도적 역할 담당

○전문요원양성

○직접사업으로 수행하면서 회원조합 및 업종별 조합사업으로 유도

○회원조합 계약생산 계통출하로 계란수집 및 판매방안 수립

협회의견

(제 1 안) 초창기 축협중앙회에서 직영 점차적으로 회원조합 및 민간사업으로 발전 유도

(제 2 안) 지역조합·업종별조합 운영은 자금능

력이 없으므로 중앙회에서 시설후 운영대행, 2~3년간 결손액 보조, 축산진흥기금에서 소비자 홍보 협조

(제3안) 민간업체 운영을 위해 정책사업으로 장기저리 자금의 집중지원, 소비자 홍보 협조

제 2 차 이사회 개최 - 5 월 18일 축산회관 회의실 -



△제2차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제 2 차 본회이사회가 지난 5월 18일(수) 오후 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임덕성사무국장의 사회로 성원보고에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상윤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브로일러가격 하락, 채란업체의 계란가격 난조 등 업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하고 신중한 토의를 통해 양계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황인옥전무는 업무현황보고에서 △관련업체 주요행사 참가 △각종 회의개최 및 행사 △세미나 개최 및 사업실적(간행물 발간, 지도조사, 방역대책, 검정사업, 각 분과위원회, 행정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부의 안전심의에 들어갔다.

부의안전 심의에서는 15명의 신입회원가입과 서울, 경기 양계협동조합, 부평연합 계우회의 단체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에 따른 과태료 인하 조정추진을 위해 각 이사들을 지역별, 정당별로 농수산, 건설분과 위원들을 개별접촉해 양측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키로 하고,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방안 검토, 닭 혈청검사사업 승인, 기타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양계산물 소비홍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홍보를 떠나기 위해 더욱 연구할 것을 결의했다.

기타사항에서는 지난 1차 이사회에서 결의된 바 있는 회비징수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각도 지부장들이 요구, 6월초 개최될 회장단회의에 부의하여 결정키로 했다.

계란 저온저장고 설치 간담회

- G.P센타와 병행해서 설치 희망 -

계란저온저장고 및 G.P센타설치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5월 24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부는 83년도 축산진흥시책에 의거 계란수급조절과 계란가격안정을 위해 계란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결정하고 그 신청을 받은 바 있으나, 본회 채란분과위원들이 선진지시찰을 마친후 긴안목에서 저온저장고는 G.P센타와 병행해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으고 이날회의를 통해 축협에 G.P센타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역은 G.P센타 설치를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를 유보하고 부산지역에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키로 협의하였다.

한편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은 이날 회의를 통해 3개소의 G.P센타 설립추진을 위해 자체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시설비 일부를 정부에 지원요청할 뜻을 밝혔다.

닭질병 방역대책을 위한 간담회

- 가축위생연구소, 본회 임원진과 -

본회와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설동섭)는 가금 질병 발생양상의 복잡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설동섭소장과 연구소 각과장, 계열과 연구관 전원, 본회 이상윤회장을 위시한 부회장단, 황인옥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닭 질병 방역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닭질병 발생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으로 △타사양수수 급증과 밀집지역의 방역대책 △외래성 질병의 발생을 증가 △중계장, 부화장 위생상태 △난계대전염병의 예방 △급성 또는 악성전염병발생 위험성 △닭질병 양상의 복잡화 및 내성화 등이 지적되었으며, 연구소는 이의 해결책을 위해 ○대민지도 강화 ○예찰정보 및 병성감정 업무강화 ○중계장, 부화장 유해 감염병의 예방기술체계 확립, 지속적 근절사업 전개 ○외래성질병 예방대책 수립 ○혼합백신개발, 효율적인 방역프로그램수립 ○개란성질병 퇴치방안수립 등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밖에 효율적인 닭질병 방역을 위해 계군혈청검사(계군위생검사)를 본회가 가축위생 연구소 협조를 받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세부시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회는 지난 5월호(p165참조)에 밝힌 바와 같이 △양계규모 대형화, 집단화, 밀집화로 가금 질병 발생빈도 상승 △공동방역체제 필요 △닭질병 양상의 복잡화로 실험실진단 필요 △정기적 질병예찰 및 검사를 통한 예방조치 강구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계군위생검사(혈청검사)를 실시키 위해 각 농장의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본회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검물검

사 신속처리 및 비밀유지 △필요시 백신역가감정 가능성 △혼합백신의 국내개발 촉구 △추백리검사 수수료 인하 △외국 수입약품, 백신 등 미치는 영향 엄선 △소독제의 효력 재검토 △시설보강 및 연구요원 양성 등에 대한 요망사항을 밝혔다.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계획 전달

- 축협, 농수산부 당국에 -

정부의 범국민적 식생활개선사업과 영양가 높고 값싼 고급단백질 급원인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본회는 농수산부 관계당국과 축협에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계획을 건의했다.

최근 닭고기 소비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육계생산농가 보호와 범국민 식생활개선운동본부 창립(본지 5월호 p188참조) 등에 발맞추어 오는 7월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시할 것으로 하는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계획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도 등에 와이드칼라 설치, 대중집합소·버스·전동차내에 포스터 부착, 여성전문지 요리소개, 요리강습회 등을 실시해 닭고기 소비의 저변확대와 경제적인 국민 식생활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단백질식품을 더욱 널리 공급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과제인 것이다.

전남지부 단합대회 및 친목야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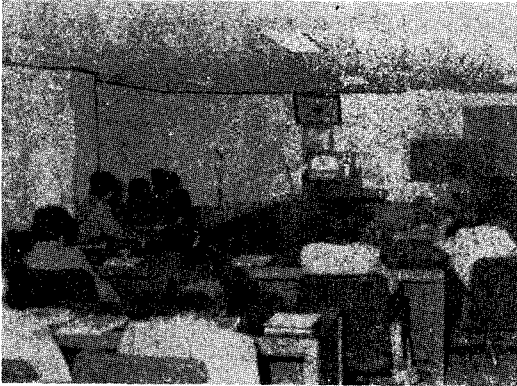
- 곡성 압록강변에서 -

본회 전남지부(지부장 김 용찬)는 전회원 일치단결을 위하여 단합대회 및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회원의 절대적인 구심체인 협회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자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일시 : 1983년 5월 20일 오전 10시

장소 : 곡성 압록강변

제 5 회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노계육 이용에 대한 시청각 교육도 -



5월 정기 채란분과위원회가 5월 16일(월) 오후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진양행(대표 정진국)의 협조를 얻어 선진국의 노폐제이용과 선진국 도계처리 및 유통현황 등에 대한 VTR을 시청하였다.

이어서 황인옥전무는 무허가건물 양성화 과태료를 인하, G.P센타 건립추진, GNE백신의 수입, 양계산물 소비촉진 등에 대한 협회 주요업무를 보고하였다.

이어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양계기반조사 사업으로 조사된 초생추 출하수수의 검토와 농장별로 전문수의사 채용효과와 실험실운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계군위생검사(혈청검사)사업, 난가동향 분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난가동향분석에서는 5월초부터 계란가 격형성의 애로점이 많아 이 문제에 대한 중점논의가 있었다. 위원들은 월간 현대양계사에서 발행되고 있는 시세속보가 간혹 생산자의 불이익상태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시정을 해줄 것을 참석한 현대양계 김중곤사장에게 요구하고 시세속보발행을 신중히 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한 바 있다.

생산자들은 현재 2~3중 시세형성으로 생산자 손해가 너무크다고 지적 스스로 작성해 권익보호를 위해 단합해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인들과 다각적인 접촉으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는 매월 사양, 질병, 유통에 대한 기술세미나를 개최, 각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어 채란분과위원회는 물론 관심있는 채란농가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육계생산자 월례회의 개최 - 6 월에는 국내 선진지 시찰키로 -

5월 육계생산자 월례회의가 지난 27일 본회 하층에 있는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에 앞서 육계처리 가공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육계생산자 및 도계장 운영자를 위해 오진양행 정진국 사장의 해설로 선진외국의 육계처리 가공이용에 대한 시청각교육(비디오 상영)을 실시했는데, 육계생산자 및 전국외의 도계장대표 대다수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어서 육계생산자 회의에서는 최근 중부지역에서 행정관서로부터 비닐하우스철거 지시에 대한 대책과 특정건축물 과태료를 인하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비닐하우스 철거문제는 지역 여건에 자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특정건축물 과태료율 인하문제는 지역 의원들에게 계속 진정·건의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6월 육계생산자 회의는 국내 선진양계장을 견학키로 했는데 시기는 6월 23일~24일 1박 2일로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키로 했으며, 기타 사항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 육계생산자들에게 통보키로 했다.

이어서 정보교환 및 전망검토에서는 병아리 가격의 상승기미와 중부지역에서 육계 하이브로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83계란 수요추정

본회와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이 계란 소비 추세 파악과 수급상황 조사를 위해 계란입하량 및 제빵 제과점, 음식점, 슈퍼마켓, 시장 등 표본조사와 계란상인과 축협공판장 청문조사결과 83년도 총소비량을 5,812백만개, 서울 2,033백만개(전국의 35%)로 추정했다. 수도권(서울, 의정부, 인천, 안양, 성남)지역의 수요량은 전국의 약 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서울의 경우는 가정용이 60%, 사업용이 28.7%, 제과·제빵용이 10.8%, 군납 등 기타 0.5%로 밝혀졌다.

'83년도 계란수요 추정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년 간 총 수요량 | 1 일평균 수요량 | 1 일 수요 내역 (서울) | | | | 계 |
|----|-----------|-----------|----------------|-------|--------|---------|-------|
| | | | 가정용 | 사업용 | 제과(빵)용 | 군납 등 기타 | |
| 전국 | 5,812,000 | 15,920 | | | | | |
| 서울 | 2,033,000 | 5,570 | 3,340 | 1,600 | 600 | 30 | 5,570 |
| 대비 | | | 60% | 28.7 | 10.8 | 0.5 | 100 |

전북지부 단합 체육대회 -삼양사 전주 제1공장 잔디축구장-



(박인수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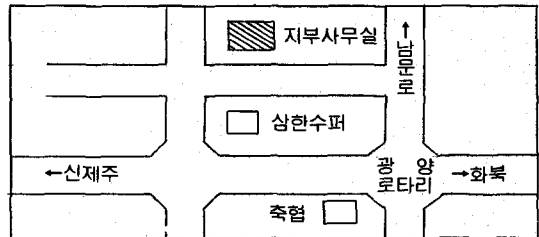
전북지부(지부장 박인수)는 지난 6월 2일 삼양사 전주 제1공장 잔디축구장(전주시 팔복동<코카콜라>)에서 양계인 및 관련업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 체육대회를 가졌다.

개회사에서 박인수지부장은 「양축인들이 서로 단합하여 선진조국의 축산기수가 되자」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축구, 배구 등을 통한 우의와 협력으로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 속에 행사를 마쳤다.

제주지부 사무실이전 - 5월 9일 이도1동 -

제주지부(지부장 강태호)는 지난 5월 9일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이전주소 : 제주시 이도1동 1789-7
전화 : 2-0195



'83 계란 수요 추정

(단위 : 천개)